

무치악 환자의 보철치료 : 처음부터 끝까지

권 공 록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임플란트가 치과계의 화두인 이 즈음에 총의치를 논하는 연자가 한편으로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진부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보철 치료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는 할 줄 알아도 단순 총치치료는 못하는 치과의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총의치 치료를 위하여 총의치학을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완전 무치악 환자를 치료하는 총의치학의 치료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보철임상의 전반적인 치료를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의치 치료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정립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임상 및 기공 단계별 술식에 있어서는 술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술식 방법의 차이가 의치의 유지, 지지 및 안정성이나 나아가 심미성까지 고려하는 점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총의치치료의 기공임상을 학생들과 임상가들에게 지도해 오면서 느꼈던 주요한 치료의 요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총의치의 제작 단계별 임상 및 기공술식이 술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지 궁극적인 총의치 치료의 목적인 저작기능의 회복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가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청중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 총의치 환자의 진단
- 총의치 환자를 위한 인상채득의 원리
- 약간관계의 기록법
- 인공치 배열 및 교합조정
- 의치의 장착 후 처치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특히 의치를 필요로 하는 무치악 노인 환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이 강연이 임상가 여러분의 무치악 환자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다가올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스위스 Geneva 대학 치학부 방문 교수
- * 미국 Harvard 대학 치학부 방문 교수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학(원)장
- *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 *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교수
대한치의학회 회장